간화선 대중속으로

설선(說禪), 문 없는 문을 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여시아문 | 1만5천원

범어사-현대불교 공동주최
10대 선사초청 설선법회
법문 · 질의응답 책으로 엮어

흔히 '선(禪)'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을 것이다. 불교에 수많은 경전과 법문이 존재하는 이유다.

올해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는 이러한 '언어를 넘어선 언어'로 선이라는 '문 없는 문'을 열어 보인 법열(法悅)의 장이었다. 지난해 조계사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가 현대인들에게 '선수행'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면, 이번 설선대법회는 '왜 선이어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설선대법회의 의의'(지유) '무차선법회, 선이란 무엇인가'(진제)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혜국)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수행'(고우) '선과 삶'(인각) '자비와 지혜를 조화롭게 닦는 선수행'(현산) '선수행의 바른 길'(지환) '생사문제와 선수행'(무여) '화두는 조사공안이다'(원융) '선수행의 단계'(정광)를 주제로 진행된 열번의 법회에는 선 수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연인원 5만여 명이 참석해 그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에 발간된 <설선(說禪), 문 없는 문을 열다>는 설선대법회에서 펼쳐진 선사들의 감로법문과 법회 현장에서 오고간 질의응답을 고스란히 활자로 옮겨 놓은 '지상(紙上) 법회'다.

조계종 수행가풍 진작의 실질적 주역이자 우리나라 수행문화를 이끌어가는 선사들의 육성법문이 눈앞에 보이듯 생생히 펼쳐진다.

"깨달음에 가까이 가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을 '화두공안'이라고 합니다. 그 화두공안도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 또 도(道)라는 것은 닦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지유 선사)

"참선공부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꾸준히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공부에 단속(斷續)이 있으면 공부를 하더라도 향상이 없고 하다 말다 하면 오히려 퇴보하기 쉽습니다. 깨칠 때까지 수행하되 내생이든 후 내생이든 시간을 논하지 않고 오로지 화두만 참구할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해 나가기만 한다면 이루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지환 선사)

"부디 이 자리에서 법문 듣는 것으로 다 됐다고 하지 마세요. 정 시간이 없으면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시간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참나가 무엇인고?' 하고 참구하세요."(혜국 선사)

올해 3~5월에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는 현대인들에게 간화선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자리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책에서는 특히 무차선법회로 진행된 회향법회에서 열린 법거량 현장이 눈길을 끈다.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으려는 재가불자와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진제 스님의 서릿발 같은 경책이 독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100여 년만의 폭설이 내린 3월에 시작돼 봄꽃 향기가 만발하는 5월에 끝난 설선대법회.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물을 키워내는 자연의 진리처럼, 대중의 근기에 맞춰 울려 퍼진 법문은 중생을 부처의 길로 안내하는 소중한 자양분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자비심 넘치는 세상 히로스케 환상동화

빨강 도깨비, 불 뿜는 용과 함께 환상의 동화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자. 일본을 대표하는 동화작가 하마다 히로스케의 동화집 <울어버린 빨강 도깨비>가 우리나라에 번역돼 첫선을 보였다.

히로스케의 동화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특유의 따뜻한 필체로 보여준다.

이번 동화집에는 눈멀고 귀먼 할머니를 위해 스님 대신 열심히 염불을 해주는 하얀 여우,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준 아이를 위해 멋진 배로 변신하는 용, 인간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빨강 도깨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떠나가는 파랑 도깨비, 자신의 사후처리를 해줄 마을사람들을 위해 송어를 키우는 노인, 겨울나들이에 나선 아기곰에게 팥빵을 나눠주는 할아버지 등 자비로운 주인공들로 가득하다.

불자인 히로스케는 이번 동화에서 '선은 보상받고 악은 징벌 받는다'는 유교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없앴다. 그의 캐릭터들은 동물이나 도깨비나 불성을 가진 자비정신이 가득한 캐릭터로 그려진다. 히로스케가 만들어낸 따뜻한 캐릭터와 이야기가 주는 이런 감동은 그가 작고한지 50년이 넘도록 그의 동화를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게 만들었다.

히로스케의 동화는 완벽한 마무리를 하지 않는다. 뒷이야기가 더 있을 듯한 마지막은 오히려 더 긴 여운을 남기며 독자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준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울어버린 빨강 도깨비
하마다 히로스케 지음
안직수 · 안권수 옮김
박소훈 그림
이른아침 | 9천8백원

벼랑 끝 미소 찰나의 순간

빛과 시간-한국의 마애불
정양근 사진
눈빛 | 2만원

국보 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이 불상은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천진한 아이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애로운 부처님 같기도 한 미소를 보여준다. 이처럼 하늘과 맞닿은 벼랑에 새겨진 마애불(磨崖佛)은 빛의 조화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연과의 합일(合一)을 이루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마애불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온 정영근씨 역시 마애불에서 '빛과 시간'을 읽어냈다. 그가 최근 펴낸 사진집 <빛과 시간-한국의 마애불>에는 오랜 세월 견뎌 온 굴불사지 사면불상과 남원 신계리 마애불좌상, 월출산 마애불, 서산마애삼존불, 법주사 마애불좌상 등이 60여장의 사진으로 오롯이 담겨 있다. 빛과 마애불이 빚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수십 수백 번 카메라 셔터를 눌렀을 작가의 노력이 그대로 사진에 묻어난다.

마애불은 빛과 어우러지며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사진은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보물 제199호).

"마애불 답사를 다닌 지난 10년은 내 60평생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침묵 속의 휴식이며, 고요하고 깨어 있는 무쟁(無爭)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정씨는 "이 사진들은 순례길에 만난 부처님들 앞에 바치는 작은 정성"이라고 말한다. 이경홍 교수(경일대 사진학과)는 정씨의 사진에 대해 "찍혀진 사진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읽어내는 수행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평한다.

책 뒤편에는 이태호 교수(명지대 미술사학과)가 쓴 '바위에 새긴 부처-한국인의 심상, 마애불'을 덧붙여 마애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여수령 기자**

"인도의 속살 직접 느껴보자"

뷰티풀 인디아
이태훈 지음
다른세상
1만6천원

인도 여행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도라는 단어에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다. 수많은 감성적인 인도 여행서와 사진들이 보여준 인도의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도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선뜻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거대한 인도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래서 수 천 년에 걸쳐 이룩된 인도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와 맞물린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태훈의 뷰티풀 인디아>는 뷰티풀 세계여행 시리즈의 네 번째 편으로 단순히 인도 여행을 소개하는 여행서가 아니다. 지은이가 보고 느끼고 사진찍은 것들과 함께 그가 만난 사람, 문화, 유물 그것에 얽힌 역사와 종교의 이야기가 무겁지 않으면서 흥미롭게 펼쳐진다. 책장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인도의 속살까지 헤집고 들어가 그들의 뿌리와 맞닿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종교 갈등으로 인도에서 독립 분리된 파키스탄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도 문화의 한 영역인 파키스탄 지역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지은이는 전작들과 달리 몇가지 질문을 던지며 여정을 옮겨간다. "인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 "인도는 신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행복한 것일까?"라고.

그는 이 화두에 대한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며 여행을 계속한다. 그리고 종국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렇다. "가라, 그 땅을 디디고 서서 느껴라. 느린 걸음으로 그것들을 둘러보라. 당신은 그때서야 비로소 인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천여 명의 죽음을 배웅하며 쓴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고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10년 넘게 해온 비구니 능행.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도록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 정토마을을 세워 오늘도 봉사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남긴 눈물과 감동의 사연들!
이 책은 능행스님이 만난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다. 딸아이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엄마,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자식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벌어지는 우리네 인생의 다양한 모습, 아쉽고 안타까웠을 순간순간들이 책의 페이지 페이지마다 그려지고 있다.

이승과 저승의 간이역 정토마을 비구니 능행스님의 이별과 만남 이야기!
능행스님이 몸이 크게 아파 병석에 누웠던 2년 전 하나 둘 메모해둔 원고가 이 책의 바탕이 됐다. 그간의 활동을 일기체 형식으로 적어 애기가 생생하고, 그런 만큼 설득력도 크다. —중앙일보
능행스님은 잘살다가도 어느 날 죽음이 닥쳐 질질 끌려가기보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답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죽음일까 하고 묻는다. —동아일보

능행 지음 | 신국판 | 올컬러
276쪽 | 9,500원

02-335-5755